

희망나눔 보따리 38가구에 전달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구정 앞두고 희망 전달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대표 양주승)은 1월19일 포천실내체육관 앞에서 포천시모범운전자회(회장 김재현) 회원 20여명과 아름다운가게 천사 20여명 등 40여명이 희망나눔보따리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구정을 앞두고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등 38가구를 선정해 쌀20kg 38포대, 생필품 38박스를 전달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희망나눔보따리 행사는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에서 12개월 중 1

개월의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에 이어 포천시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각 읍면동에서 차량을 배치하여 38가구에 신속하게 전달해 주었다.

양주승 대표는 "아름다운 가게는 내게는 필요 없어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나와 남을 함께 아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실천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실천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활동전사의 봉사활동을 기다리고



아름다운 가게 포천점은 1월19일 포천실내체육관 앞에서 포천시모범운전자회 회원 20여명과 아름다운 가게 천사 20여명 등 40여명이 희망나눔보따리 행사를 실시했다.

있다"고 말했다.

사람은 포천시 신읍동 예원프라자에 위치한 아름다운 가게에 등록한 후 활동할 수 있다. (문의 이영숙 매니저 031-535-7799)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군 헌병대장에게 진급신고식 화제

美 헌병 윌리 헤르난데스 준위, 6군단에서 진급 신고



한국 주둔 미 헌병대 간부가 한국군 헌병대장에게 아주 특별한 진급신고서를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동두천 캠프케이 이시 윌리 헤르난데스(Willie Hernandez, 38세) 미 헌병 준위.

현재 캠프케이시 수사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헤르난데스 준위는 2001년과 2007년 한국에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과 감동을 주었던 한국군과 한국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던 중 지난해 다시 한국에서 근무하다 진급을 하게 되자

'한국군 헌병대장에게 진급신고서 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헤르난데스 준위의 희망대로 1월23일, 육군 6군단에서는 아주 특별한 진급신고식이 거행됐다.

행사는 6군단 헌병대장(중령 최승환) 주관으로 진급신고 및 계급장 수여, 진급분 낭독, 기념품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진급신고를 마친 헤르난데스 준위는 "오늘 이 순간이 인생 중 가장 특별하고 가슴 벅찬 순간"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행사를 마친후 6군단 헌병대 측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헤르난데스는 준위 1급에서 준위 2급으로 진급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종성 소장은 축하서신을 보내 "헤르난데스 준위의 영예로운 진급을 축하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군과 미군 헌병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마을버스 운행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관인~포천간 공영버스 무사안일 기원제



포천시 관인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관인~포천간 공영버스 개통에 따른 무사안일 기원제가 1월20일 관인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나해정 관인면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원제 이후 선진시내버스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동승하여 관인~운천 구간을 시승하면서 운행시간과 운행구간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냉정2리 최만호 이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새로 생김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기가 넘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한마당 이야기

여자를 울려버린 남자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장

여자를 울려버린 한 남자가 있다고 하길래, 이집 저집 수소문하여 결국 찾아냈죠. 속 깊은 멋진 사이를 함 보실래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까. 결혼을 약속하고 달콤한 연애를 하면서 연인은 행복한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었습니까.

남자는 결혼을 위해 제법 큰 아파트를 준비했고! 여자는 새 아파트에 맞는 세간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부풀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아버지가 하던 회사 사장이 부도가 나서 회사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까.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집이 가세가 기울고 있었습니까. 그래도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습니까. 결혼을 할 날 앞둔 어느 날 남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네 마음 알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라며, 그때 보여 주었던 그 아파트는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 놓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또 새 아파트에 가져갈 혼수품을 살 수 없는 형편이라 걱정하고 있었기에 그 말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인은 그렇게 결혼을 했고 어렵게 단칸방에서 달콤한 혼수 산업을 차렸습니까. 그런데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 너무 작았습니까. 그래도 여자는 신선한 맛에 기쁘게 살림을 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다행이 사업도 제법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지요. 친정 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친정 집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기의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해 지는지.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 주겠다고 말이 모두 상처로 되살아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신랑이 그때부터 미워졌습니다.

결국 여자는 그 속심한 마음에 무능한 남자와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친정 어머니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정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정 어머니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딸에게 그동안 숨겨놓았던 비밀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김 서방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털어놓아야 했구!"

친정 어머니가 해준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혼수 용품을 해 줄 형편이 못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봐 아파트를 팔아 여자 아버지의 빚 갚는데 보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로 하라는 것은 혹시 네가 기죽어 살까 봐서 그랬단다. 그리고 남자는 월급의 적지 않은 돈을 매달 여자의 아버지 병원비로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의 눈에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눈물은 조금전 어머니가 흘렸던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자는 슬픈 눈물이 아닌 뜨거운 사랑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슴이 사무쳐도록 밀려오는 한 남자의 사랑을 느끼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까.

오늘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을까요?

아침에 출근할 남편의 양복, 타이를 바로 잡아주는 작은 배려에서부터 말합니다.

(문의 011-342-5834)

포천시인사

- 지방행정 주사 ▶최기진 소읍읍
- 김재만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 ▶김영태 재산보호팀장 ▶유경인 총괄기획팀장 ▶김남현 도서관팀장
- ▶정덕근 평생교육팀장 ▶김용국 포천동 □지방시설 주사 ▶이재영 일동면
- ▶박래형 도로관리팀장 ▶김형완 하수도팀장 □지방농업 주사
- ▶김재화 가족등록팀장 □지방농업 주사보 ▶이용창 이동면 ▶김덕중 군내면 □지방행정 주사보
- ▶양성환 소읍읍 ▶김현모 가곡면 ▶신영철 영중면 ▶곽광규 내촌면 ▶이월주 예코도시개발과 ▶윤종애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강동환 의

- 회사무과 ▶정명자 민원과 ▶이경재 예코도시개발과 ▶임석빈 민원
 - 과 ▶박기영 자치행정과 □지방시설 주사보 ▶강상만 기획공보감사 담당관실 ▶조병하 민원과 ▶박성진 건설과 □지방행정 서기 ▶이형우 이동면 □지방시설 서기 ▶안지은 도시주택과 ▶김재연 도시주택
 - 과 ▶김경일 문화체육과 □지방농업 서기 ▶노희경 농업기술센터 □실무수습 ▶김경철 신북면 ▶김중희 군내면 ▶장진아 주민생활지원
 - 과 ▶조은희 복지여성과 ▶유우종 가산면 ▶김은희 환경관리과 ▶김효남 화현면 ▶이선숙 내촌면 ▶임경운 주민생활지원과
- 이상2월2일자

독자제보

“우리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세된 남 기영입니다. 2006년도 초부터 컴퓨터기초와 인터넷 활용 등을 포천시청 정보화 교육장에 수 교육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여 포천시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육장소였는데 박 시장님 있을 때에는 잘 나갔는데 새 시장님이 오셔서 포천노인들을 천대해서 그런지 2008년도10월 28일자 문을 담았습니다.

참 아쉽더군요. 담은 이유는 감사로가 없다고 받고 노인들은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몰라요.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자원 봉사자라도 구하여 포천노인들 눈 좀 뜨게, 귀 좀 열리게 하여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기영 올림

웰빙 부사의(不生意) 소일(消日)과 석음(惜陰) 75

정년(成年)을 맞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면 요즘 어떻게 소일(消日)하느냐고 묻는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물음이다. 뚜렷이 할 일이 없어 나날을 그저 흘러보내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이다. 자세히 주위를 둘러보면 정년을 맞고도 소일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일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있다. 석음(惜陰)이다.

석음이란 세월이 헛되이 지나감을 애석하게 여겨 시간을 아껴 소중히 보낸다는 말이다. 석음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 소년이 노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하고 일흔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이라는 말이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을 이루기가 어려우니 혼음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혼음(寸陰)이란 잠깐이란 뜻이다. 순간이란 뜻이다.

“석음이란 시간을 아껴 소중히 보낸다는 말이다”

받았을 가지지 않고 순간순간 흘려가는 시간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은 보이지 않는다. 느낄 뿐이다. 그것을 시각화(視觀化)시켜 혼음이라 한 것이다. 혼음이란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하나의 단위(單位)일 뿐이다. 밤낮으로 흐르는 시간의 단위를 '일흔광음'이라 한 것이다.

60세 정년을 맞은 어떤 사람이 그날그날을 할 일 없이 지내다보니 30년을 허송세월(虛送歲月)했다고 한다. 30년을 더 살 줄을 그쳐 흘러보내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이다. 자세히 주위를 둘러보면 정년을 맞고도 소일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일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있다. 석음(惜陰)이다.

석음이란 세월이 헛되이 지나감을 애석하게 여겨 시간을 아껴 소중히 보낸다는 말이다. 석음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 소년이 노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하고 일흔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이라는 말이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을 이루기가 어려우니 혼음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혼음(寸陰)이란 잠깐이란 뜻이다. 순간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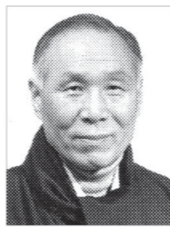
빠게 보내야 하는 이유이다. 정년 후의 생활을 더 보람 있게 보내야 하는 이유이다. 할 일이 없다고 변명하고 핑계 대서는 안 된다.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 하고 무언가 계획을 세워 실천(實踐)에 옮겨야 한다.

석음하는 사람들의 첫째 덕목은 근면(勤勉)함이다. 부지런함이다. 잠시도 시간을 허비(虛費)하지 않는다.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둘째 덕목은 절제(節制)함이다. 절약(節約)하고 절제한다. 낭비(浪費)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쓴다. 셋째 덕목은 효율(效率)이다. 하나만 생각하지 않는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혼자 하지 않는다. 더불어 하고 동시에 한다.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넷째 덕목은 봉사(奉仕)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이다.

할 일이 없다고 푸념하지 말고 봉사(奉仕)에 눈떠 보라. 할 일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봉사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흘러 넘쳐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봉사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대가(代價)가 없다고 푸념하지 말자. 가rien 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질량불변(質量不變)의 법칙(法則)'이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누군가 보아주는 사람이 없게 마련이고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게 마련이다.

당대(當代)만을 생각하지 말자. 당대에 모든 것을 받으려 하니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생각이 멈추는 것이다. 당대에 모든 것을 받으려 하니가 기여입학제(寄與入學制)도 안 되는 것이고 적선(積善)도 안 되는 것이다. 외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왜 하는가? 당대에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당대에 받으려 하니가 기여입학제도 안 되는 것이고 적선(奉仕)에 눈떠 보라. 할 일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봉사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흘러 넘쳐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이규임
민국영생계학원 명예회장

웃음 넘치는 세상 만들기 ㉔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소리를 따라 가다보니 전교생이 급식실에 다 모여 있다. 학교 일정이 끝나 가는 시간인제라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로가 결정되어 가고 있어서인지 학생들의 모습엔 여유로움이 보인다. 선생님들이 계시던지 상관없이 재잘거림에 예전의 기억들이 지나간다.

선생님들의 웃기만 스쳐도 긴장하게 되던 기억은 지금의 학생들에게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 시간이 뒤로! 클레오~ 가산면에 있는 자혜의 집 봉사하러 온 학생들과 인연으로 웃음 치료와 레크레이션에 학생들이 해 주고 있다는 선생님의 뜻에 섰듯 대답하고 온 것이다.

정말 웃음은 아이들이 많아가고 하는데 웃는 방법마저 없어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마음 한 구석이 애잔하게 느껴진다.

어렸을 적 가진 것 없었던 지 확연히 달라진 볼기를 많이 해서인지 지난 시절은 많은 웃음 짓고 살았다는 생각을 한다.

경북중학교의 웃음꽃

웃음을 준비하는 방법도 모르는 학생들, 그저 관심은 공부와 이성과의 만남으로 느껴지고 친구들이 게임에 별착을 손잡고 인사하는 것을 시켰더니 무조건 비탈 피우려는 거란다. 어른들도 말하기를 꺼리는 단어들은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나누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요즘은 인기 있는 원더걸스의 노래를 들려주니 시끄러운 장내가 조용해지고 학생들의 춤사위에 집중을 하게 된다.

박수를 치라고 해도 시무룩하고 소리 지르기를 하자고 해도 귀찮은 표정들이다.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이다.

웃음 치료는 많은 학생들을 함께 모이게 하기보다는 2~3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순종하기보다는 튀어나가려는 학생들의 자제가 무엇보다 웃음을 지어하는 것인데 학생들의 생활에 그 웃음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곳이 학교에서의 웃음 레크이다.

웃음도 가르쳐야 한다. 웃음도 스스로를 날릴 수 있는데 지금의 현실은 학생들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아무리 웃으라 해도 여지 웃음도 웃음이라고 해도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제는 보다 많은 인연으로 학생들에게도 환한 웃음 짓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웃음을 인식시키고 웃음을 사랑하고 웃음으로 만들어 가는 멋진 학교, 멋진 학생들이 많아 밝은 생각으로 변화되어 가는 학교로 거듭 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김순희
웃음치료사
문의: 018-222-1190